

# 전주서 찍은 한복 사진 선물 '핑핑'

### 시, 5월 1일~7월 30일까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한복 사진 콘테스트 진행... 664명에 경품 제공

전주시가 생활 속 한복 착용 활성화를 위해 전주 한복 사진 콘테스트를 마련한다.

전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페이스북 홈페이지에서 전주한옥마을을 포함해 전주시내에서 한복을 입고 여행한 사진을 올리면 13주간 매주 51명, 총 664명에게 다양한 경품을 주는 '한복할래?' 행사를 전개한다.

이번 한복 사진 콘테스트는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 수 제한은 없다.

참여방법은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복할래?'를 검색해 페이지를 누른 후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게시할 사진과 간단한 글을 적어 입력하면 된다.

사진 내용은 전주에서 한복입고 여행하는 모습으로, 시는 포즈의 자연성과 자유로운 연출의 독창성, 작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베스트 포토상 1명, 주간 우수상 13명, 주간 참가상 300명, 공유이벤트 참여자 200명 등 총 664명에게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시는 한복을 입는 문화 저변확대와 한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해 한복을 입고 경기전 입장시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도 한복착용문화 진흥 조례 제정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조례에는 전주시장은 한복장려 시책 추진과 한복문화의 개발 및 보급에 앞



덕유산국립공원 피나물 군락, 노란 물결의 향연 덕유산국립공원의 적상산 중턱에 피나물 꽃이 군락을 이루며 만개 주변을 온통 노란 빛깔로 물들고 있다. 피나물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선정한 '계절 알리미 생물종'으로 현호색, 산벚나무 등과 함께 봄을 알리는 10종의 생물 중 하나이다. 이밖에도 적상산에는 현재 윤판나물, 매화말발도리, 홀이비꽃대, 영초, 개별꽃 등이 개화하며 봄의 화사함을 더하고 있다.

장서 한복착용 진흥에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조례는 또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와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한복착용 문화 진흥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도 담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한옥마을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한복을 즐겨 입고 있고, 한옥마을 하면 '한복'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복을 입

는 문화 확산과 한복을 전주를 대표하는 지역문화 콘텐츠로 정립해 관광객의 적극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일회성 관광에서 탈피해 전주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명품 공예, 중국 현지 관심 고조

### 전통문화전당, 수저우 문화창의 디자인산업 교역박람회 참가

전주의 다양한 명품 공예가 중국 현지인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중국 수저우에서 개최되는 '제5회 문화창의 디자인산업 교역박람회'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전당은 이번 박람회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수공예전 특별부스를 마련하고, 전통한복을 비롯해 한지인형(예담공예), 미니어처 한복(한복의美), 전통 목공방식과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조명등, 와인랙(바오크라파) 등 50여 점을 출품했다.

전당은 특히 개막 첫날 한복을 입고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행사기간 내내 한복을 입고 작품설명, 상담 등 전 일정을 소화해 중국 CCTV, 수저우 방송, 상해TV 등 현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박람회 행사기간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전통 수공예품을 보기 위해 중국 각지에서 몰려든 현지민들로 특별부스가 연일 초만원에 이르렀으며, 중국 남경시, 무석시, 상해시 박

람회 관계자들로부터 공식 참가 요청을 받기도 했다.

또한 중국 내 디자인상품개발, 공예 관련 업체 및 기업 등 30여개 회사 바이어들이 전시기간 내내 상품 판매에 따른 판로 개척과 상품개발 협력 등에 대한 문의가 쏟아져 실질적 계약 단계를 앞두고 있다.

행사기간 전당 특별부스를 취재한 쉬춘홍 수저우 문화방송신문출판국 국장은 "전주시와 수저우시는 오래전부터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매년 문화교류를 이어왔다"며 "중국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듯 훌륭한 전통문화와 수공예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수저우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수저우 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도 "전통문화에 현대적 디자인과 접목해 중국인들의 관심을 얻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이번 전주시의 전시는 13억 중국인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작품들이라고 호평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영화의 거리, 대한민국 영화 1번지로 우뚝

### 전주국제영화제 시작... 상영관과 행사장 밀집돼 관객 몰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8일 개막식을 갖고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상영관과 주요 행사장이 밀집된 전주 영화의 거리가 대한민국 영화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모든 영화가 개막식·폐막식, 야간야외상영 등이 열리는 야외상영관과 CGV전주 고사, 메가박스 전주(객사), 전주시 네마타운,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등 전주 영화의 거리에 위치한 상영관에서 진행된다. 또, 관객센터와 프로모션 부스, 각종 공연, 관객파티 등도 영화의 거리에 마련된다.

이번 영화제의 핵심공간인 '전주 영화의 거리' 영화 상영관이 집중된 데다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반 시설, 국내 최초의 영화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어 독립·예술영화와 사랑하는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발길이 집중되는 공간이다.

특히 다른 도시에도 영화관이 밀집된 거리와 영화 관련 조형물이 설치된 거리는 있지만, 영화 기획 단계부터 촬영 후반제작, 영화 상영, 영화 자료 열람, 영화 조형물까지 한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색공간으로 평가된다.

먼저, 고사동 객사3길 옛 전주보건소 건물에 위치한 전주영화제작소는 국내 예술독립영화와 영상문화기반 콘텐츠가 집대성된 곳이다.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주영화제작소는 '디지털 색보정실'과 'HD영상편집실' 등 영화 후반제작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디지털 영화영상 통합솔루션 기술센터와 전주시 유일의 독립예술 영화 전용관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이 들어서 있다. 또, 전주국제영화제 아카이빙 작품과 독립예술영

화, 한국고전영화 VOD 서비스 및 영화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열람실'과 전주시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입주업체 공간 등도 갖춰 시민들과 영화인들을 위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전주영화호텔에서는 영화관련 서적과 영화인들의 소품 등이 전시된 영화도서관카페도 있다.

이밖에 영화의 거리에서는 국제영화제에 참석했던 영화인들의 핸드프린팅과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장소임을 알리는 특수 조형물도 만나 볼 수 있다. /김영재 기자

## 호원대 실용음악학부, 매주 화요일 정기공연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는 전북도민을 위해 정기공연 'TUESDAY CLUB'을 선보인다.

이번 정기공연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호원대학교 제2학생회관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는 매달

첫째, 셋째 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음악도시락'이라는 공연을 진행해온 호응을 얻고 있다.

호원대는 이 공연을 연장해 저녁에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음악에 관심 있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실용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기 공연으로 편성했다. /군산=문정문 기자

# 제3회 재전백산중 · 고 동창회 체육대회

4. 30. 10시 / 전주 완산체육공원 A축구장

주 최 재전백산중 · 고 동창회 협 찬 백산골프회



고문 김수곤  
전 전북대총장(3회)



고문 송택섭  
(14회)



회장 김재기  
(14회)

**수석부회장** 박노열(18) 이용훈(21)

**부회장** 이길수(17) 이상만(18) 허태표(20) 권삼현(21) 정재철(21)  
주영승(22) 정자영(22) 최규현(24) 나규순(24) 김경숙(25)

**재무** 박기영(22)

**감사** 김재규(24) 최낙삼(26)

**사무총장** 김재호(28)

**사무차장** 김경섭(28) 최병곤(29) 김윤연(29) 박철진(30) 송이석(33)  
이강순(33) 김중수(34)

**운영위원** 박영래(15) 신원식(16) 한창식(17) 김규태(18) 김택근(19)  
김종모(20) 김우술(21) 박기영(22) 김장수(23) 이승희(24)  
김용직(25) 한영희(26) 차규철(27) 박호석(28) 황병철(29)  
서동진(30) 오연택(31) 김재문(32) 김중건(33) 육삼수(34)  
박용방(35) 고창재(36)

**자문위원** 송윤철(14) 김중진(18) 이용희(18) 황재식(18) 강철원(20)  
김동철(22) 권창영(24) 권익현(25) 이백수(25) 우천규(27)  
박천호(27) 이종희(28)